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1

지역, 잇다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1

지역, 잇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1

지역, 잇다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목차

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소개

8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LIN.K) 소개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18 경기 김포 - 김포문화재단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 Visible/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6 전남 해남 - 시화풍정 담소
평화의 시마을 해남 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34 경기 화성 - 화성시문화재단
효(孝)의 춤

40 강원 영월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48 강원 정선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56 전북 전주 - 한국전통문화전당
국제유사전통놀이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

66 전남 담양 -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76 역량강화교육

78 경북 영주 – 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 선비의 삶

84 강원 인제 –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書如初畵梅亭)’

참여자 인터뷰

92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참여자 인터뷰

104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참여자 인터뷰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특별기고

114 지역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 – 이선철

119 로컬문화 브랜딩 및 마케팅: 더 작은 도시로, 더 좁은 골목으로 – 홍유정

122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교류사업의 방향 – 주재연

125 미술관의 새로운 도전, 예술생태계의 확장과 공공성 – 김재환

129 문화기획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박정인

부록

134 역대 참여 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ww.kofi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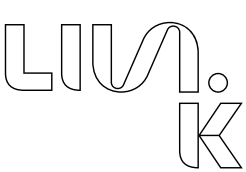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 설립 이후 다양한 문화교류로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018년에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비전으로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교류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문화교류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지역·민간 주도 국제교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제문화교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Local Cultu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with Korea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민간 주도의 교류사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지역의 32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들은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과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지원'에서는 당해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전국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기획지원'에서는 다음 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의 사업기획력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및 축제, 시각, 지역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 지원과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관리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기획지원을 통해 고도화된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중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추진지원에서도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가자격 및 연속지원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기획지원 → 추진지원 → 추진지원 우수사업 선정 → 연속지원 등의 단계적 사업고도화 및 지원을 통해 쌍방향 국제교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간 협업 방식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예산 및 사업관리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사업예산: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 최대 1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 전문가 자문: 사업 착수-운영-평가 단계별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제공

지원규모

총 8개 내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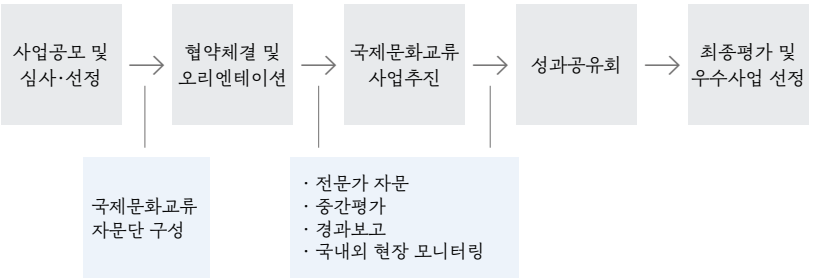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확보
- 진흥원-사업수행단체-지자체 간 3자 협약체결

사업 참여방법

- 연초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한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1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전시, 워크숍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 Visible/ 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년 추진지원 우수사업
2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샨티니케톤	공연, 영상제작, 워크숍	평화의 시마을 해남 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3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프랑스 몽펠리에	공연, 워크숍	효(孝)의 춤	'20년 기획지원 우수사업
4	강원 영월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	일본 히가시카와	전시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5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연, 전시, 체험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6	전북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몽골 울란바토르, 스페인 바라칼도· 사라고사	개발연구, 특강, 워크숍, 콘퍼런스	국제유사전통놀이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	
7	전남 담양	담양군문화재단	중국 광저우	전시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다음 해 추진 예정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완성도 제고 및 수행단체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지자체 및 수행단체의 국제문화교류 기획·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자문: 사업기획안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 네트워킹 예산: 우수사업으로 선정 시 다음 해 사업 추진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일부 지원(최대 1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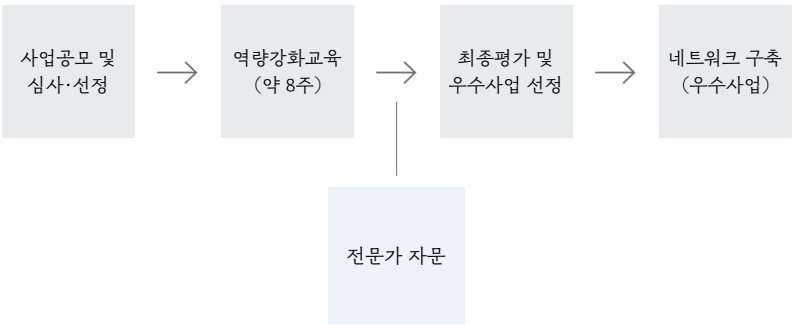
지원규모

총 5개 내외 사업

사업 참여방법

- 이메일(lin.k@kofice.or.kr)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하여 다음 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1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경북 영주	영주문화관광재단	베트남 하노이	공연, 워크숍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 선비의 삶	‘21년 기획지원 우수사업
2	강원 인제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중국 항저우	전시, 학술발표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 (書如初畵梅亭)’	
3	강원 강릉	강릉문화재단	러시아 이르쿠츠크	공연, 워크숍	강릉-이르쿠츠크 두 도시 이야기	
4	경남 진주	진주문화예술재단	미국 맥알렌	공연, 전시	희망의 등,「맥알렌」가다	
5	전남 곡성	마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공연, 워크숍	이야기 밥상에서 깊어가는 심청전 – 곡성을 넘어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지역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운영규모

공연 및 축제, 시각, 홍보·브랜딩, 지역문화, 저작권·법률 분야 전문가
11인 내외

주요활동

- 사업 전 과정의 전문 자문 제공: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방향 설정, 교류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 제시
- 현장 밀착형 제언으로 사업 추진 협력: 사업 분야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교육: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제고,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 전수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한 사업평가 후 피드백 제공, 현장 방문 등 대면·비대면 자문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

당해 연도 추진사업 자문
공모 심사 및 선정
교류사업 자문
중간·최종평가
현장 모니터링

다음 연도 기획사업 자문
공모 심사 및 선정
역량강화교육
사업계획안 자문
최종평가

운영절차

1. 자문위원단 위촉
   -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2. 공모 심사 및 선정
   -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안 평가 및 기초지자체·사업수행단체 선정
3. 사업별 자문위원 전담 지정
   - 선정사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전담 지정
4. 밀착 자문 및 역량강화교육

- 사업 착수-운영-모니터링-평가 단계별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 국제교류, 홍보·브랜딩 등 다방면 자문 분야
-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성과 확대를 위한 교육

5. 사업평가
- 사업 중간·최종평가 및 지역 국제문화교류 우수사업 사례 발굴

2021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연번	분야	자문위원	소속 및 직책
1	공연·축제	류효봉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노리단 대표
2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3		주재연	㈜난장인터랙티브 대표이사
4	시각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5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6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7	지역문화	모세환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대표
8		안민영	독립문화기획자
9	홍보·브랜딩	홍경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0		홍유정	로컬문화 마케팅 기획사 하스카 대표
11	저작권·법률	박정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2021년 추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 지역은 전통놀이(전북 전주), 사진(강원 영월), 아리랑(강원 정선), 시(詩)문화(전남 해남)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미국, 중국, 몽골, 스페인과 같은 다양한 해외 지역과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그중 김포문화재단(경기 김포)과 시화풍정 담소(전남 해남)는 2020년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교류지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각각 국경과 인권(경기 김포)이나 평화와 시(전남 해남)라는 주제의식을 심화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을 이끌었다.

화성시문화재단(경기 화성)은 2020년 기획지원 프로그램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발판으로 효심과 애민사상이라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국제무대에까지 확장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전북 전주)은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국, 스페인, 몽골 학생들을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또한 '역사적 아픔과 한'이라는 기존 콘텐츠의 주제를 '희망과 신명'으로 새롭게 조망하고 승화시키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시도 또한 돋보였다(강원 정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7개 사업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부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한중수교 29주년 전시를 진행한 담양군문화재단(전남 담양)은 데이터 기반 전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교류전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강원 영월)은 직접 만남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 사진 및 영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었으며 지역 간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를 약속했다.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 Visible/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는 2013년 7월 30일 미국에서 첫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도시이며, 국경을 넘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함께 지지하는 도시로, 분단된 대한민국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과제를 두고 있는 김포시의 자매도시이다. 김포시와 글렌데일시는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주요한 의제이자 두 도시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슈인 '경계, Border'에 관한 예술가들의 협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하여 인권과 평화의 바탕 위에 보편적 연대와 성찰, 예술과 표현으로 두 도시 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국제교류전 홈페이지(ggiep.net)

사업 소개

사업명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 Visible/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업 분야	전시·워크숍(현대미술)
참여 지자체	경기 김포
사업수행단체	김포문화재단
교류지역	미국 글렌데일
주요 교류기관	리플렉트 스페이스

김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은 예술단체 지원, 국제문화교류 사업 등 김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관이다. 문화 다양성·문화도시 사업, 김포평화사업 등을 통해 문화교류 및 남북한 교류 활성화, 평화와 인권의 확산이라는 김포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교류지역

미국 글렌데일은 2010년 김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다. 아르메니아계 시민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바탕으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찍부터 공감을 표하며 해외에서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주요 교류기관

김포문화재단과 교류한 글렌데일 시립도서관은 글렌데일시의 주요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는 곳으로, 리플렉트 스페이스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 리플렉트 스페이스는 2017년 글렌데일에 개관한 시립 미술공간으로서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홀로코스트, '위안부'라는 희생과 아픔의 역사, 인종 간 경계의 문제를 예술의 관점에서 표현하며 다루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공공전시 ‘Borders : Visible/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Borders : Visible/Invisible, 경계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는 두 도시 간 공동의 문제인 ‘선, Border’를 소재로, 김포가 마주하고 있는 경계의 문제인 한강 하구에 대한 탐구, 글렌데일이 마주하고 있는 전쟁과 디아스포라, 다문화, 이민 문제를 소재로 양 도시의 작가들이 창작에 참여했다. 김포에서는 10명의 작가가 짝을 이루어 5개의 작품을 창작했고, 글렌데일에서는 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총 10개의 작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시되었다. 작가들의 작품은 시민들의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 도시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김포골드라인 전체 역사와 글렌데일 시내 주요 버스정류장에 설치 및 전시되었다.
홈페이지·영상 제작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의 QR코드는 바로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ggiep.net)로 연결되어, 작가들이 설명하는 작품 해설과 작품 정보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작품과 함께 양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국경, 선, 경계(Border)’의 문제에 대한 두 도시 작가들의 재해석과 고찰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워크숍	상호이해 증진과 작품활동의 진흥, 양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양 도시 작가-큐레이터, 실무진들의 온-오프라인 워크숍이 진행됐다.

성과

- 주제를 가지는 국제교류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장기-지속-공유 가능한 교류사업 추진
- 외부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 유도
- 지역 내 국제 예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한강, 접경, 경계, 평화, 인권’에 대한 가치 공유 증진
- 그동안의 형식적·피상적인 이해와 교류를 넘어, 가치와 표현을 공유하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깊이와 수준을 강화
- 시 차원의 행정적 교류 단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분야별 교류(문화예술 분야 우선)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확대-제도화 기대
- 김포시 - 글렌데일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전시 개최

· 공공전시 작품 안내 영상 10편 제작
· 작가 – 큐레이터, 양 도시 실무자 온 – 오프라인 워크숍 진행
· 접근이 쉬운 국제교류전 홈페이지 오픈

참가자 통계 (202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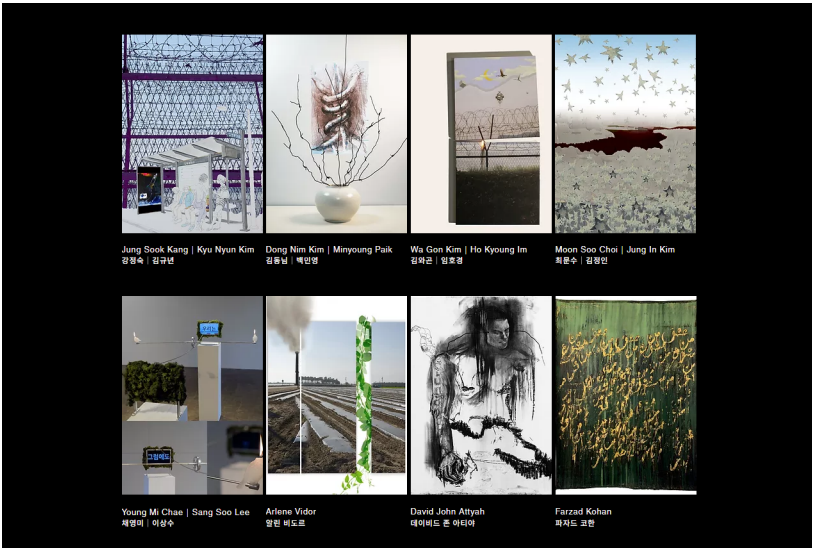
- 공공전시 참여 작가 15명
- 공공전시 관람자 하루 평균 이용객 5만 6천 명 중 10% 5,600명
-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 350명, 국제교류전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 688명
- 김포문화재단 유튜브 조회수 1,677회,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29개
- 워크숍 참가자 약 35명
- 글렌데일 리플렉트 스페이스 관계자 3명 등

후속 교류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지속 – 콘텐츠 확대 운영
- 양국의 정기적(온-오프라인) 교류 및 문화예술 관계자의 상호 교류 방문 추진



김포 골드라인 전시



온라인 작품 전시



미국 글렌데일 버스 정류장 전시



미국 글렌데일 버스 정류장 전시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시 포스터





작가 워크숍

평화의 시마을 해남 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샨티니케톤과 해남은 상호 간 교류를 더 돈독히 다져간다는 데 의의를 두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교류했다. 양국 예술가는 해남의 시인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속 '내 벗이 몇인고 하니'의 '벗'을 모티프로 공동으로 음원을 제작했다. 또 고정희 시인의 타계 30주기를 기념하여 고정희 시인의 시노래에 샨티니케톤의 무용가들이 창작한 안무와 춤을 콜라보레이션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교류를 진행했다. 사업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샨티니케톤의 무용가가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맞춰 해남에서 작은 시노래 축제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공동 작업한 결과물과 담소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상영되었다. 이 작업물은 이후에도 공개되도록 설정하여, 교류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람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가 공동제작한 결과물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이런 공동작업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반응이 많았다.



시노래 축제 라이브 공연(해남의 굿패 '해원'이 선보이는 해남의 흥)

사업 소개

사업명	평화의 시마을 해남 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사업 분야	공연
참여 지자체	전남 해남
사업수행단체	시화풍정 담소
교류지역	인도 웨스트벵골주 샨티니케톤
주요 교류기관	청년 예술단체 '뽀리바르'

시화풍정 담소

시화풍정 담소는 2015년부터 해남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펼쳐온 공연단체로 작곡, 작사, 편곡 역량 등 고유의 콘텐츠를 창작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동서양 및 타 예술 장르와 크로스오버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체이다. 정식 단체로 구성되기 전부터 지역 문화예술 자산과 인적자원을 결집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했고, 꾸준히 후진을 양성해왔다. 약 10년간 북평중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한 예술 캠프와 국악 사물놀이 캠프 등을 개최했으며 해남의 대표 브랜드인 퓨전 국악공연 '길을 가다'와 '땅끝에서 부는 바람'을 비롯해 땅끝 작은 음악회, 고정희 문화제, 김남주 문학제, 제주 시노래 콘서트, 담소의 월 정기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공연을 연출했다. 명실상부하게 해남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문화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교류지역

해남은 인도에서 직접 불교가 전래되어온 역사를 지녔으며 그 외에도 역사적, 지리적 특성상 외국의 문물을 흡수, 통합, 재창조하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온 지역이다. 고산 윤선도를 비롯하여 고정희, 김남주 시인 등을 배출하여 풍부한 시적 유산이 전해지는 시인의 마을이기도 하다.
샨티니케톤은 우리에게 '동방의 등불'로 잘 알려진 시성 타고르가 인도에 설립한 교육도시로서 시를 음악으로, 음악극으로 다양하게 확장하는 문화예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시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음악극, 미술, 무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두 지역에 갖춰진 풍부한 시문화의 교류를 통해, 두 도시는 올해로 2년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샨티니케톤이 있는 웨스트벵골주는 전라남도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주요 교류기관

청년 예술단체 '뽀리바르'는 샨티니케톤에서 음악, 악기, 노래, 무용 등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예술가들이 상호 간의 예술적 역량을 실험적 무대 또는 협연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프로그램

내 벗이 몇인고 하니	양 지역은 '벗'을 모티프로 〈오우가〉 창작곡과 〈You & I〉 창작곡을 공동제작했다. 〈오우가〉는 '내 벗이 몇인고 하니'라는 시구절이 포함된 「오우가」의 서문을 영역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작곡하고 편곡과 음악적 연출까지 더하여 만든 음악이다. 〈You & I〉는 너와 내가 항상 평화 속에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양국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개성을 반영하여 공동제작한 음악이다.
고정희 시노래 뮤직비디오	고정희 시인의 시 「청산별곡」과 「사랑법」을 노래한 시노래를 배경으로 한 음악에, 인도 무용가들이 고정희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안무를 춤으로 하여 인도 현지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이다.
시노래 축제	뽀리바르 예술단원들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유튜브 라이브 공연으로 선보여, 함께 교류하고 있는 지역 및 단체와 실시간으로 감상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사람들과 인도의 숨결을 함께 느끼는 감동의 시간을 마련했다.

성과

- 한국-인도 공동창작 작업으로 시문화 공연예술의 지평을 확장
- 양국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 및 성장과 발전의 기틀 마련
- 언어적 한계로 국제교류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문화 분야에 국제적 공감대와 발전 방법을 모색

참가자 통계 (202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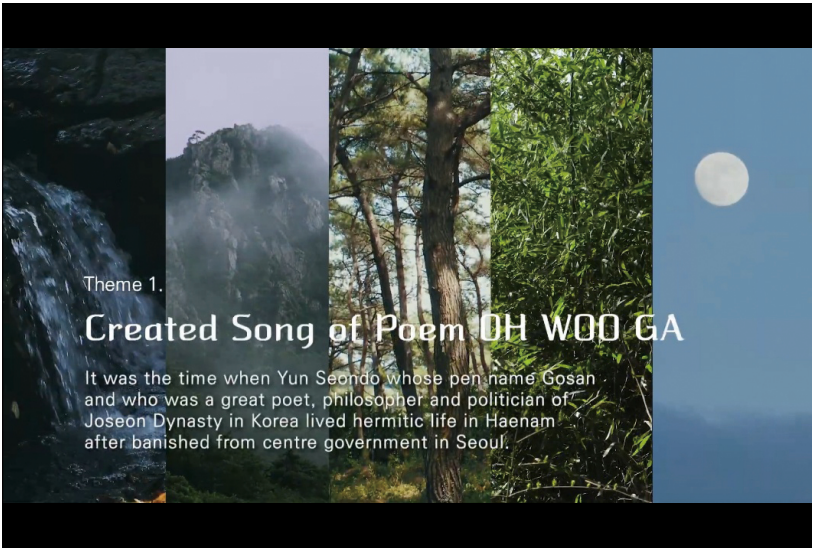
- 유튜브 라이브 공연 조회수 461회
- '좋아요' 및 댓글 참여도 약 100명

후속 교류

- 양국 예술단체 단원 상호 교류 방문 추진
-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의해 세종학당(인도 내에 총 7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우가」 및 고정희의 시 「청산별곡」을 정기적 시 낭송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 논의 예정
- 우수영 들소리 및 해남 강강술래 등 지역문화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콘텐츠화하는 방안 논의 예정
- 해남의 시문화를 국제적 교류 콘텐츠로 개발·확장하는 시문화 포럼 발족 예정(2022)



샨티 포엠토피아 티저영상



샨티 포엠토피아 티저영상(영문)



주니어 담소 공연(교육도시 샨티니케톤처럼, 후학 양성을 지원하는 예술단체로서 담소의 의지를 표현)



고정희 시노래 「청산별곡」 뮤직비디오 스틸컷



시노래 축제 라이브 공연(「오우가」 창작곡 첼로, 피아노 연주)



시노래 축제 라이브 공연(유튜브 댓글창으로 실시간 소통)

경기 화성 | 화성시문화재단

효(孝)의 춤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에 소재한 세계문화유산 융건릉을 기반으로 한 〈정조 효 문화제〉를 수년간 개최하며 조선 왕실의 전통문화, 정조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중심으로 화성시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정립,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교류사업에서는 왕실 문화와 효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해준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우원 천장'의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의 전통과 화성의 미래상을 몽펠리에 등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화성시문화재단 영우원 천장 노제의 퍼포먼스 촬영

사업 소개

사업명	효(孝)의 춤
사업 분야	공연(창작 무용), 워크숍(공예 체험)
참여 지자체	경기 화성
사업수행단체	화성시문화재단
교류지역	프랑스 몽펠리에
주요 교류기관	코레그라피(Chorégraphie) 협회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은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정조 효 문화제와 능행차 재현, 뱃놀이 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교류지역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자, 지중해의 아름다운 정취를 간직한 몽펠리에는 2021년 현재 제7회 한국문화축제인 코레디시(Corée d'ici : 여기에 한국이 있다)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디시 페스티벌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의 체험부터 문화교육까지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동시대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불 문화교류를 통해 각 도시의 예술가들과 레지던시 작업을 진행하며 한국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이러한 코레디시 페스티벌에서 정조의 효심과 애민사상이 깃든 행사를 진행하여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고자 했다.

주요 교류기관

| 몽펠리에 시청 및 몽펠리에 국제교류의 집

화성시와 몽펠리에 간 우호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공연 교류 및 제작 방향, 양 도시 교류 기획을 주도하고 있다. 현지 리서치 및 시민 참가자 모집, 몽펠리에 주요 관계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추진 중이다.

| 코레그라피협회(코레디시 페스티벌 추진단)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프랑스에서의 한국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약 20여 일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한식, 공연, 전시, 문학,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 간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예술과 문화의 융복합 축제로 펼쳐진다. 7회째인 2021년에는 화성시 융건릉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공동 창작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맥간 아틀리에	화성시의 맥간공예 키트를 프랑스 시민들과 공유하여, 자연을 소재로 일상을 꾸려나간 우리 선조의 지혜와 공예의 아름다움을 전달했다.
화산, 그 하늘에서 노닐다 (영우원 천장 노제의 재현 퍼포먼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조선 최고의 명당 화성시 융릉으로 이장한 왕실 장례문화를 각국이 공동 퍼포먼스로 재현했다. 창작된 공통의 음악으로 화성시는 영우원 천장 노제의를, 몽펠리에시는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을 창작 무용으로 표현했다.

성과

- 영우원 천장 노제의를 위해 창작된 음악을 기반으로 재현(화성시) 또는 재해석(몽펠리에시)한 공연 창작
- 각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촬영된 영우원 천장 노제의 재현 영상을 제7회 코레디시 페스티벌 중 몽펠리에시 현장 상영(2021.11.20. - 21.)

| 참가자 통계

- 축제 참가자 약 5,000명
- 공연 관람자 약 600명
- 워크숍(맥간 공예 아틀리에) 약 100명
- 프랑스 몽펠리에시 관계자 20명

| 후속 교류

- 화성시 '화산, 그 하늘에서 노닐다' - 프랑스 '아버지' 영상 유튜브 공개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코레디시 그라피 공식 유튜브)



몽펠리에시 공동음악 배경 창작 무용 촬영



화성시문화재단 영우원 천장 노제의 퍼포먼스 촬영



몽펠리에 코레디시 페스티벌 중 맥간 공예 아틀리에 진행

강원 영월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2010년 11월 4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은 양 도시 모두 지속적으로 매년 국제사진제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사진이 대표적 지역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는 힘들게 되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의 사진전으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 지역의 주민들이 위로와 치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획 의도와 같이 양 도시에서 전문 사진작가보다는 주민, 학생 등 일반인이 많이 참가하여, 전문예술인 외에 다양한 일반인들까지 교류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민간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에서 태어나 제2의 고향인 영월에서 가정을 꾸린 16명의 가족사진 40여 점 및 영월 다문화 학생의 영상과 손편지 등이 현장에서 상영, 전시되어 양 도시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2021.10.8.-19. 히가시카와)

사업 소개

사업명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사업 분야	전시(사진)
참여 지자체	강원 영월
사업수행단체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교류지역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
주요 교류기관	히가시카와정 해외교류촉진협의회, 히가시카와 한국교류협회, 문화복합공간 센토퓨어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은 한국 언론의 역사를 조망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물론 현장의 기자들이 사용했던 타자기, 카메라, 출입기자증 등과 과거 정기간행물,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한 역대 기자상 수상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2012년 개관하여 매년 영월동강국제사진제 자문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영월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연합, 영월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등 지역 내 생활예술단체와 유대관계를 지속하며 지역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기자협회, 한국사진학회 등 다수의 대외 협력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교류지역

일본 홋카이도 중앙에 위치한 히가시카와정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이센산의 지하수를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어 홋카이도에서도 유일하게 상수도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은 양 도시에서 매년 국제사진제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사진이 대표적 지역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11월 영월군과 문화교류 협정을 맺은 히가시카와정은 1985년 사진마을을 선언한 후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진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새롭게 '사진 문화 수도'를 선언하여 사진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 사람들, 그리고 웃는 얼굴이 넘쳐나는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9년 히가시카와의 마쓰오카 이치로 정장의 영월군 방문, 히가시카와 국제사진페스티벌의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협력기관 초청 및 고명진 관장의 히가시카와 방문을 통해 양 도시는 민간 문화교류의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류기관

| 히가시카와정 해외교류촉진협의회

지역적 과소·과밀의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혼을 담은 사진 문화의 수도를 표방하며 지방의 특색을 발전시킨 히가시카와정의 대표적 교류단체이다. 지자체와 지역민, 예술인이 공생하는 지역문화단체로 풍부한 자연을 소중히 살리는 공생형 사회, 사진 문화 등 환경의 특성을 살린 지역 진흥, 국제사진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와 함께 지방 문화와 역사의 보존, 세계인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히가시카와 한국교류협회

히가시카와 내 단체로서 한국과의 다양한 문화, 경제적 교류를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한국 유학생 등 현지의 한국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 문화복합공간 센토퓨어

일본어 학교,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 등 국내외와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의 교류를 창출하는 시설로서, 도서관도 미술관도 박물관도 아닌, 사진 문화 수도로서의 거점이 되는 독특한 공간이다.

프로그램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사전 홍보 전시 '안부'	2021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히가시카와 문화복합공간 센토퓨어 잔디 광장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사진작가 11명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히가시카와 관람객들에게 영월에 대해 알리며, 10월 본 전시에 대한 일반인 참가자 모집 및 사전 홍보를 위한 전시를 개최하였다.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2021년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과 히가시카와 문화복합공간 센토퓨어(대강당, 잔디 광장, 포토 스트리트)에서 양 도시의 사진작가 및 일반인 참가자 170여 명의 작품 370여 점을 데이터 교환을 통해 공동 전시했다. 히가시카와와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막식은 10월 8일 오후 3시에 영월군에서만 개최되었다. 영월 최명서 군수와 군의회 부의장 등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고, 아쉽게도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히가시카와정 마쓰오카 이치로 정장, 히가시카와 한국교류협회 모리타 사카 회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주일한국대사관 강창일 대사, 아시아기자협회 아슈라프 아불야지드 회장도 축하 영상을 전했다.
온라인 영상 포럼	양 도시의 실무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번 교류전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매년 양 도시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했다.

성과

1) 양 도시 간 사진 콘텐츠 관련 문화교류 대상의 확대
- 사진작가 외에 일반 생활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민간 예술교류의 기반을 구축
-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관 주체의 대형 교류 외에도 양 도시의 일반 주민 간의 교류 유도
- 생활예술문화의 대중성에 맞추어 다양한 생활예술인이 참여하여 일방적이지 않고 현실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양방향 문화교류 형성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음

2)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관람, 양 도시의 후속 교류를 위한 일반인 참여 유도
- 단기간의 행사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3) 일반인들의 사소한 일상 공유를 통한 생활문화교류 유지

- 일본에서 태어나 제2의 고향인 영월에서 가정을 꾸린 16명의 가족사진 40여 점 및 영월 다문화 학생의 영상과 손편지 등이 현장에서 상영, 전시되어 일반인의 사소한 일상이 팬데믹 시대에 양 도시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일반 주민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줌

참가자 통계

- 양 도시의 사진작가 및 일반인 참가자 170여 명의 작품 370여 점
- 전시 관람자 양 도시 1,100여 명
- 영월 박물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 12명, 히가시카와정 해외교류촉진협의회 및 협력기관 관계자 11명

후속 교류

|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생활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활예술인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를 모집, 활성화하여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을 넘어 아시아 다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
-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적 교류가 힘들지만 작게나마 원데이 샷 이벤트 등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
- 일반 주민들의 양 도시 대표적 국제사진제 참여 및 방문 교류 추진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사전 홍보 전시 “안부”(2021.9.1.-12. 히가시카와)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2021.10.8.-19. 히가시카와)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2021.10.8.-19. 영월)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2021.10.8.-19. 영월)

강원 정선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우호도시 강원도 정선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공통 문화유산, 즉 양국의 공통된 삶과 고유문화자원인 '아리랑'을 기반으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했다. 아리랑을 매개로 한 기존의 문화콘텐츠가 과거 아픔의 역사, 민족의 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향수였다면 이번 사업은 문화교류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아리랑의 신명과 흥겨움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디아스포라의 노래: 아리랑로드》

사업 소개

사업명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사업 분야	복합(공연, 전시, 체험)
참여 지자체	강원 정선
사업수행단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교류지역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주요 교류기관	고려인협회, 고려문화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과 창조적인 활용으로 정선아리랑의 진흥과 가치 제고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아리랑의 이주 및 전파 노선을 토대로 아리랑의 전승 배경과 양상,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아리랑 유적(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탈군 등) 및 관련 인물 등을 재조명하고 학술, 교육, 전시,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의 중요한 콘텐츠이자 원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아리랑로드' 정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류지역

정선군은 카자흐스탄 카라탈군과 2014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정선아리랑'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문화원과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고려인문화사업이 잘 형성되어 있고, 특히 알마티시 카라탈군은 고려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한인 문화와 관광객을 위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옛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갔던 우리 민족의 모습처럼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흥겹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새 출발로서 A-Culture Road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주요 교류기관

| 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정체성 및 문화 복원, 고려인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등 제반 활동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공연단(고려인 아리랑, 전통악기 연주, 전통무용)

1. 김겐나지 – 고려인 2세. 전(前) 카자흐스탄 아리랑악단원, 고려인극장 극장장, 현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 교수로 '고려인 아리랑', '사할린의 봄' 등 기타 연주를 통해 고려인의 정체성을 지켜낸 아리랑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카자흐스탄 전통공연단(뚜란, 라이즈쇼) – 전통악기인 돔브라(Dömbra)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주와 노래, 그리고 전통무용팀으로 대한민국의 리듬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카자흐스탄의 리듬과 움직임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아리랑로드〉 온라인 전시	VR 체험관을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아리랑을 담은 온라인 전시
《아리랑로드》 영화 상영	다큐멘터리 영화《디아스포라의 노래: 아리랑로드》영화 상영
〈컬처로드〉 문화교류-춤	양국의 전통 움직임을 영상을 통하여 체험
〈컬처로드〉 문화교류-리듬	양국의 전통 리듬 및 장단을 영상을 통하여 체험
〈컬처로드〉 아리랑 교류-음원	정선아리랑과 고려인 아리랑의 음원을 교환하여 서로의 노래 체험
정선의 대표공연 〈아리 아라리〉 공연 영상 송출	정선아리랑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정선의 대표 공연 〈아리 아라리〉 송출
카자흐스탄 전통 공연 및 고려인 아리랑 연주 영상 송출	김겐나지 교수의 고려인 아리랑 연주 영상 및 카자흐스탄 전통 공연 송출 (연주/무용)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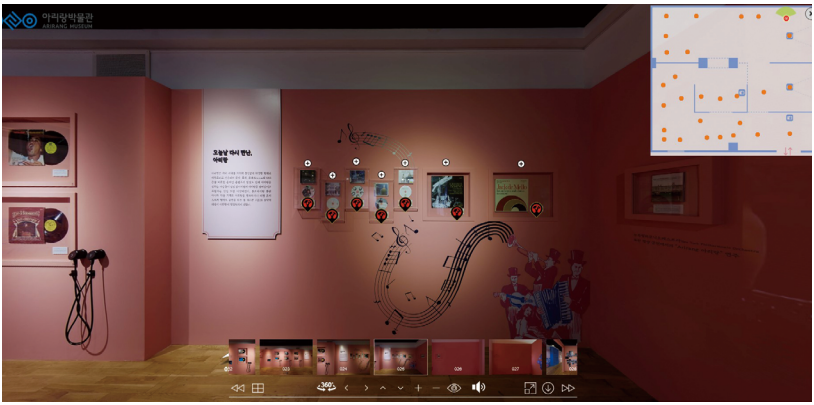
- 공통된 역사 '아리랑'에 대한 교류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가치 확산과 위상 제고
-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교류 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국제문화교류의 발판 마련

후속 교류

-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 시, 카자흐스탄 예술단 초청 추진
- 2022년 후속사업으로 정선-카라탈군 '문화교류의 날' 추진, 지속적인 교류 추진
- 2022년부터 중장기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신 아리랑로드' 공연 '러시아~유럽' 문화공연 투어 추진



'아리랑' 노래 체험 가이드 영상 촬영



'다시 만난 아리랑' 온라인 VR 전시



한국 전통 리듬 체험 가이드 영상 촬영



카자흐스탄에서 부르는 아리랑 촬영 현장



카자흐스탄 교류 행사



〈A-culture road〉 티저 포스터



〈A-culture road〉 티저 포스터

전북 전주 | 한국전통문화전당

국제유사전통놀이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와 세계 각국 전통놀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참가국 간 민간교류 및 우호 증진을 통해 전통놀이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진행된 '국제유사전통놀이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에는 3개국 9곳에서 660여 명이 참여했다.

전통놀이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은 한국의 윷놀이와 사방치기, 몽골의 샤가이, 스페인의 사방치기(홉스코치, Hopscoatch)를 체험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관을 확장했다. 또 각 전통놀이의 흥미로운 관점을 찾아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온라인의 소통방식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및 개발 결과물을 소개하는 국제교류 온라인 발표회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봄으로써 청소년 국제전통놀이 문화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자국의 전통놀이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의 놀이를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통놀이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적인 국제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적 규모의 전통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전문가 중심의 콘퍼런스는 학계 및 놀이 현장, 전문가에서 청소년까지 합류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K(Korea)-heritage를 넘어 W(World)-heritage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향후에도 유사 전통놀이 문화유산 중심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놀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고, 세계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고취하며 한국 전통놀이 문화유산의 국제적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몽골 울란바토르 학교에서 새로운 놀이도구를 만드는 모습

사업 소개

사업명	국제유사전통놀이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사업
사업 분야	전통놀이[프로젝트 활동, 온라인 발표회 및 콘퍼런스, 콘텐츠 개발(놀이도구, 설명 영상, 게임)]
참여 지자체	전북 전주
사업수행단체	한국전통문화전당
교류지역	몽골(울란바토르), 스페인(바라칼도, 사라고사)
주요 교류기관	한국(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고창남중학교, 전주야호학교), 몽골(울란바토르 학교) 스페인[바라칼도 지역(Ikastola Alkartu 초등교육센터), 사라고사 지역(Rosales del Canal 초등학교, Valdespartera III School, La Purísima 초등학교, Zaragoza's 대학 교육학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에 설립되어 국가적인 한문화 정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총괄하고 견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융·복합 형태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를 대중화·산업화·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 한식, 공예,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각종 전시, 공연, 체험과 교육 등 누구나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진행한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한옥마을 내에 전통놀이문화 전용공간(우리놀이터 마루달)을 2개소 조성했다. 연구, 교육, 체험, 행사, 대회, 교류 등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전통놀이를 보급·확산하고 문화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교류지역

한국과는 문화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전통놀이가 계승되어오는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 지역을 선정했다. 몽골은 농경문화인 한국과 달리 유목문화이지만, 한국의 윷놀이(나무)와 몽골의 샤가이(동물 복사뼈)가 놀이방식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사방치기는 각 국가마다 불리는 명칭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놀이방식도 유사하다. 사방치기를 중심으로 교류한 스페인은 전통놀이·스포츠의 관리, 홍보, 보호 및 개발과 실천을 목표로 하는 전통놀이스포츠협회(European Traditional Sports and Games Association, 이하 AEJeST) 유럽 회원국으로, 페레 라베가(Pere Lavega Burgués) 회장이 2020년 7월, 문체부·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이 개최한 전통놀이문화 국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하여 교류 의사를 밝힌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

주요 교류기관

| 몽골 울란바토르 학교

울란바토르 학교는 12년제 사립학교로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의 부속학교이다. 2004년 울란바토르 초등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2008년 울란바토르 중·고등학교 개교, 2011년 바양주르흐구 우수 사립학교 선정, 2014년 바양주르흐구 아이들이 행복한 기관 선정, 2015년 학교 수행평가 최우수 학교 선정, 2018년에는 울란바토르시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9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 스페인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AEJeST)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비정부 기구로서 2001년 4월 28일 프랑스 레스네벤에서 설립되었다. 유럽의 전통놀이·스포츠의 관리, 홍보, 보호 및 개발과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유네스코는 정부 간 체육교육 및 스포츠 위원회(CIGEPS)를 통해 테헤란(이란)에서 세계 전통놀이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플랫폼을 만들고자 집단 협의체를 조직했으며, AEJeST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제 전통놀이스포츠협회(ITSGA)의 창립 단체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

유사 전통놀이 기반 프로젝트 활동	한국의 윷놀이와 몽골의 샤가이, 한국의 사방치기와 스페인의 사방치기(홉스코치, Hopscoatch)를 중심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 교류가 진행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전문가 동영상 자료를 통해 각국의 전통놀이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한 후 새로운 놀이콘텐츠(방법 및 도구, 온라인 게임 등)를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국과 몽골에서는 각 학교마다 12차시 이상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으며 64명(교사 포함)이 참여했다. 스페인에서는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AEJeST)를 주축으로 바라칼도와 사라고사 지역 5곳에서 596명(교사 포함)이 사방치기를 진행했다.
전통놀이 국제교류 온라인 발표회 (청소년 중심)	전통놀이 국제교류 온라인 발표회는 한국(전주야호학교, 고창남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과 몽골(울란바토르 학교)이 주축이 되어 2021년 10월 30일에 진행되었으며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본 발표회는 사회부터 통역까지 온전히 청소년 주도로 진행된 행사로서 유사 전통놀이 기반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과보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제안 및 소감을 발표하여 청소년 중심의 국제교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통놀이 국제교류 전문가 콘퍼런스	한국, 몽골, 스페인에서 참여한 전통놀이 국제교류 콘퍼런스는 스페인 2곳에서 사방치기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고 학계 및 놀이 현장, 전문가부터 청소년까지 합류한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었다. 2021년 11월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120여 개의 회선으로 접속, 200여 명이 참여한 이 콘퍼런스는 국제 전통놀이문화 교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고,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AEJeST)의 회장으로부터 세계의 전통놀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다. 콘퍼런스 이후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대화방이 개설되어 전통놀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국·스페인 간 지속적인 교류 요청과 초등학교 간 대면 교류를 제안받기도 했다.

놀이콘텐츠 시제품 제작	유사 전통놀이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놀이콘텐츠는 한국의 윷놀이와 몽골의 샤가이를 기반으로 한 '미션 코리몽, 온라인 게임, 빙고 샤가이' 등이며 한국의 사방치기와 스페인의 사방치기를 기반으로 한 '연합사방치기' 등이 있다. 이 중 미션 코리몽을 시제품화하기 위해 덴마크 레고 본사의 리드 아티스트 자문을 진행했으며,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시제품 및 설명 영상을 제작하고 교류국에 배포했다.

성과

-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AEJeST) MOU 체결 1건(2021.7.30.)
- 청소년 중심 프로젝트 활동(2021. 9.~11.), 총 660여 명 참여(교사 포함)
- 청소년 국제교류 온라인 발표회 1회, 60명 참여(2021.10.30.)
  ※ 활동경과 보고, 놀이콘텐츠 아이디어 제안 등
- 전통놀이 국제교류 콘퍼런스 1회, 200여 명 참여(2021.11.11)
- 새로운 놀이콘텐츠 아이디어 도출·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1건, 설명 영상 1건, 온라인 게임 1건
  ※ 온라인 게임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개발
- 영상 콘텐츠 13건(전문가 동영상 자료 4건, 시그널 영상 2건, 프로젝트 활동 영상 등 7건)
- 성과공유집 1건
- 언론보도 13건

참가자 통계

- 교류활동 : 3개국, 9곳, 총 660명 참여(교사 포함)
  - 몽골 : 울란바토르 학교 총 12명 참여(학생 10명, 교사 2명, 13차시 운영)
  - 한국 : 야호학교 총 20명 참여(학생 15명, 교사 5명, 12차시 운영), 고창남중학교 총 29명 참여(학생 28명, 교사 1명, 13차시 운영),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총 3명 참여 (학생 2명, 교사 1명)
  - 스페인 : 바라칼도, 사라고사 2개 지역에서 총 600여 명 참여(바라칼도 1곳 300명, 사라고사 4곳 296명)
    ※ Ikastola Alkartu 초등교육센터, Rosales del Canal 초등학교,

Valdespartera III School, La Purísima 초등학교, Zaragoza's 대학 교육학과

후속 교류

- 한국과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 회원국 중심 전통놀이 전문가 국제학술포럼
- 한국과 몽골, 스페인의 아동·청소년 중심 유사 전통놀이 지속적인 교류 진행 (예: 스페인 초등학교와 한국 초등학교 1:1 매칭으로 각국 유사 전통놀이 교류)
- 개발된 놀이콘텐츠(놀이도구, 설명 영상, 매뉴얼)를 교육 및 놀이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여 콘텐츠 수정 보완 후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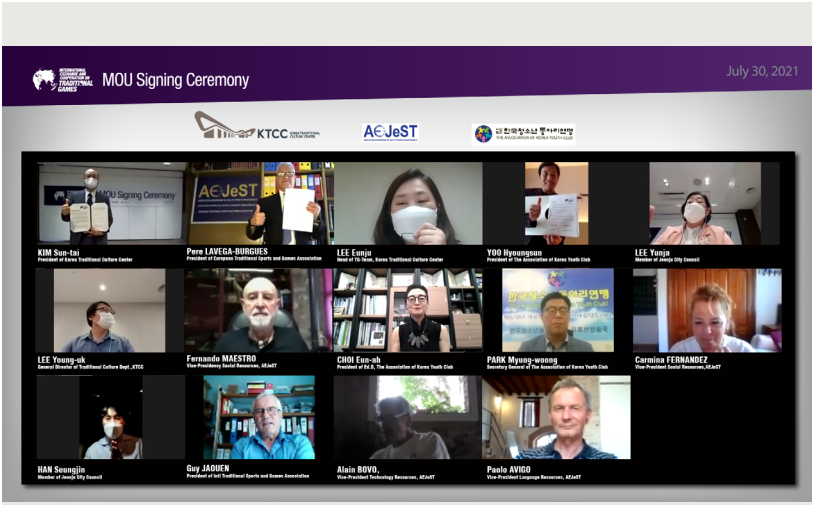


몽골의 샤가이를 빙고게임과 접목한 새로운 놀이 제안





스페인에서 한국 사방치기를 체험하는 모습



유럽 전통놀이스포츠협회(AEJeST)와 MOU 체결(2021.7.30.)



청소년 국제교류 온라인 발표회(2021.10.30.)



전통놀이 국제교류 콘퍼런스(2021.11.11.)



전통놀이 국제교류 콘퍼런스(2021.11.11.)

전남 담양 | 담양군문화재단(담빛예술창고)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담양군의 '담빛예술창고'와 광저우 '대용당칠호창예술관'의 공간 콘텐츠 교류를 통하여 양 국가 간 공간교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노드 3.3은 공간교류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칭이다.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인 지역 네트워크에 연결된 구성의 총합을 하나의 노드라 하는데, 문화예술에서도 도시공간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의미이다.

특히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의 본 전시인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전시와 VR 가상전시관 전시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교류 전시회의 활로를 찾는 기획연구전의 일환으로, 양국 작가 및 기획자들이 국경선 없이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여 도시 간 공감 플랫폼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한중 포스터

사업 소개

사업명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사업 분야	전시(공간교류 콘텐츠)
참여 지자체	전남 담양
사업수행단체	담양군문화재단(담빛예술창고)
교류지역	광저우
주요 교류기관	대용당칠호창예술관

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은 '사람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 담양의 '신르네상스'를 슬로건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여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교류지역 및 주요 교류기관

광저우 대용당칠호창예술관(大庸堂·柒号仓艺术馆)은 중국의 3대 도자기 생산지 남풍고조(南风古灶)에 위치한다. 중국예술원 회원을 중심으로 도자, 현대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영위하며, 도자기를 이용한 국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계기로 광저우시, 마카오, 선전시를 무역·기술 중심의 3각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성장 전략에 따라 확대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대용당칠호창예술관의 위화(魏华) 관장은 광둥성 대학도예학술위원회원, 광저우미술대학 교수, 중국예술연구원 위원으로 국내외에서 폭넓은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이라는 타이틀로 지역문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드머니 역할을 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의 공간문화 연계사업을 매년 지속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한다. 동시에 참여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분야별 인지도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융복합 작품을 제작하여 홍보 역할도 맡게 된다.

프로그램

공간 데이터 개념미술전	양국 작가의 작품(에스키스, 설계도, 작가노트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프린트, 설치, 리터칭,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여 큐브형 전시, 설치미술형 전시 등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교류 전시의 일면성을 제시하며, 참여 국가 간 교류(전시)에 대한 해답을 연구했다.
VR 가상전시관	가상전시관(VR)으로 구축된 이번 데이터 개념 미술 전시는 양국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 전시의 활로를 찾고자 했다.
온라인 워크숍	문화 프랜차이즈 설립과 공유 콘텐츠의 주제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위해 양 도시 공간 브랜드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성과

| 언론홍보

- 중국 언론보도 27건
- 한국 언론보도 13건

| 제작물

- 스핀오프 형태의 2차 창작품 20여 점
- VR 이미지 전용 페이지
- VR 실사 전용 페이지
- 웹도록
- 위챗 전용 홍보페이지
- 도록
- 세미나 백서

참가자 통계

- 한국 측 참여작가 : 19명 / 중국 측 참여작가 : 17명
- 전시 관람자 11,275명
- 위챗 전용 홍보 페이지 12만 뷰
- 워크숍(온라인 화상 세미나) 참가자 24명

(대용당칠호창예술관, 광저우예술협회, 광저우미술학원,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 등)

후속 교류

- 정기적인 작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레지던시, 교류전 등)
- 양국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행
- 국제 아트페어 동반 참가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담빛예술창고 전시 전경



KBC광주방송 〈내 고향 전파〉 담양 촬영 현장



광저우 대용당칠호창예술관 '시에 위안칭' 작가 작품 설치



중국 전시현장 점검(광저우작가협회)



담빛예술창고 업무협약식



대용당칠호창예술관 업무협약식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은 교류사업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의 기획 완성도 향상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되었다.

2021년 기획지원 프로그램에는 총 5개의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다. 5개 단체는 8주간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며 전문가 자문위원과 대면·비대면 자문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콘셉트, 기획 및 운영 방향, 사업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함께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중 2개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렇게 선정된 영주문화관광재단(경북 영주)과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강원 인제)은 프로젝트를 2022년에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네트워킹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두 기관은 기획 구체화, 워크숍, 컨설팅, 답사,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하며 추후 진행할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역량강화교육

7~8월 총 8주간, 기획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NEXT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의 '국제문화교류의 이해' 5개 영상이 사전교육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강연이 개최되었다.

교육 주제는 국제문화교류의 개념과 지향점부터 사업기획 방향, 공연 및 시각 분야 중심의 실무 사례,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문화예술 특화 법률 내용까지 다양했다. 우수한 쌍방향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담당자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기획·추진지원 우수사례를 직접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2021년 커리큘럼

일정	주제	내용
1주 (7.7.수)	오리엔테이션	• 선정기관 소개 및 사업계획안 공유
	사례공유	• '20년 기획지원 우수사업 사례 - 화성시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자문	• 전담 자문위원 분반 자문
2주 (7.14.수)	강의	• 지역 콘텐츠 활용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전략 (박신의 자문위원) • 지역문화의 국제적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안민영 자문위원)
3주 (7.21.수)	강의	• 국제문화교류 법률 및 저작권 1부 (박정인 자문위원) • 3개의 사례로 보는 국제교류 (류효봉 자문위원)
4주 (7.28.수)	사례공유	• 추진지원 우수사업 연속 추진 사례 - 이천시청 공예팀 | '18~'19년 도자 명장들의 전통 도자기 제작 시연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19~'20년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강의	• 국제교류사업의 전략적 기획 (주재연 자문위원)
	자문	• 전담 자문위원 분반 자문
5주 (8.4.수)	현황공유	• 기관별 자문 추진내용 및 사업계획 현황
	강의	• 미술관 국제교류 사례 및 동아시아 예술과 교류 (김재환 자문위원) • 로컬 기반의 국제교류 전략 Why Local (이선철 자문위원)
6주 (8.11.수)	강의	• 국제문화교류 법률 및 저작권 2, 3부 (박정인 자문위원)
7주 (8.19.목)	강의	• 사업의 브랜딩, 홍보를 위한 기획 점검 (홍유정 자문위원) • 지역문화의 발견과 콘텐츠 기획 (홍경수 자문위원)
8주 (8.25.수)	최종평가	•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및 자문 피드백, 우수사업 선정

경북 영주 | 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 선비의 삶



영주와 베트남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양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유교문화 시연과 공연으로 문화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주의 세계문화유산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베트남 유교의 대표적인 상징인 '문묘'에서 영주시의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영주시의 전통 공연, 과거급제 행사 및 행차 시연, 선비의 삶을 통한 한국의 전통적인 통과의례를 시연하고, 베트남의 유교문화를 볼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하여, 소통과 볼거리를 동원한 교류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영주의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대학생, 청년과 베트남의 전문예술인,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문화교류 워크숍을 통해 공통문화인 유교를 주제로 합동공연을 기획하고 이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한국선비문화축제'에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예정이다. 내년을 위해 올해 베트남 교류 기관과 화상 회의를 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며, 국내의 예술단체 및 참여기관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회갑잔치 시연

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에서 출연한 문화관광재단이다. 기존 관광산업과에서 맡아온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업무를 재단에 이관하여 영주시 대표 축제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화하고자 설립되었다.

교류지역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문화, 젓가락 사용, 구정 문화 등이 한국과 비슷하고, 전통적으로 조상을 존중하고 동경하는 문화도 닮아 있다. 또한 베트남 리 왕조의 7대 왕자로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이용상과 관련한 유적지인 이당고택이 영주시 장수면에 위치하여 베트남 역사와 깊은 인연을 가진다. 영주시와 베트남은 2017년 '영주시의 날' 베트남과 투자, 수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영주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인견, 사과 등을 홍보하며 베트남과 상호 우의 증진은 물론 경제, 문화, 관광 교류 사업을 확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교류기관

1. Vietnam Women's Union
베트남 전역에서 중앙, 지방, 구, 공동체 4개의 행정 수준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회원 수는 1,700만 명 이상이다. VWU는 평등, 개발 및 평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대외적인 관계를 확대하고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온 300개 이상의 조직과 우정과 협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영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및 아랍어의 번역과 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하고 있는 하노이의 국립외국어대학교다.

3. 국제예술대학교(ICA)
음악, 연기, 춤, 패션 프로그램이 있는 하노이의 국제예술대학교다.

사업기획 발전 성과

‘유교’라는 공통점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서로의 유교문화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전통 공연 및 시조를 활용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워크숍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하고 예술단체들 간의 MOU를 통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 진행
각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보임	→	청년 및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교류의 특성이 잘 보이지 않음	→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

워크숍	한 주에 한 번씩 국내의 전문예술인,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며 추후 진행할 행사 및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전통의례와 공연에 참여할 예술인들을 모집하고 베트남 현지 예술인들과 함께 화상 회의를 진행한다.
선진지 답사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방문하여 진행 시 어려웠던 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을 듣고, 결과물 활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컨설팅	국제교류 진행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2022 추진 계획

사업명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 선비의 삶
분야	공연, 워크숍(전통)
참여 지자체	경북 영주
사업수행단체	영주문화관광재단
교류지역	베트남 하노이
주요 교류기관	Vietnam Women's Union, 하노이 음악협회, 국제종합예술대학(ICA),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사업 개요	• 교류 내용 영주-하노이 간 공통 주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공연 교류 • 프로그램 1) 선비의 풍류를 기반으로 한 전통공연, 선비의 교육(과거급제), 선비의 혼례 시연(지자체 학생들과 전문예술인들이 직접 전통공연에 참가하여 시연) 2) 양국의 유교 관련 시조(영주:「도동곡」, 베트남:「난후도곤산감작」)에 양국의 전통 노래를 입혀 소리로 유교문화 교류 3) 이틀간 양국의 전문예술인, 예술대학 학생들이 워크숍을 통하여 합동 기획 공연물 또는 전시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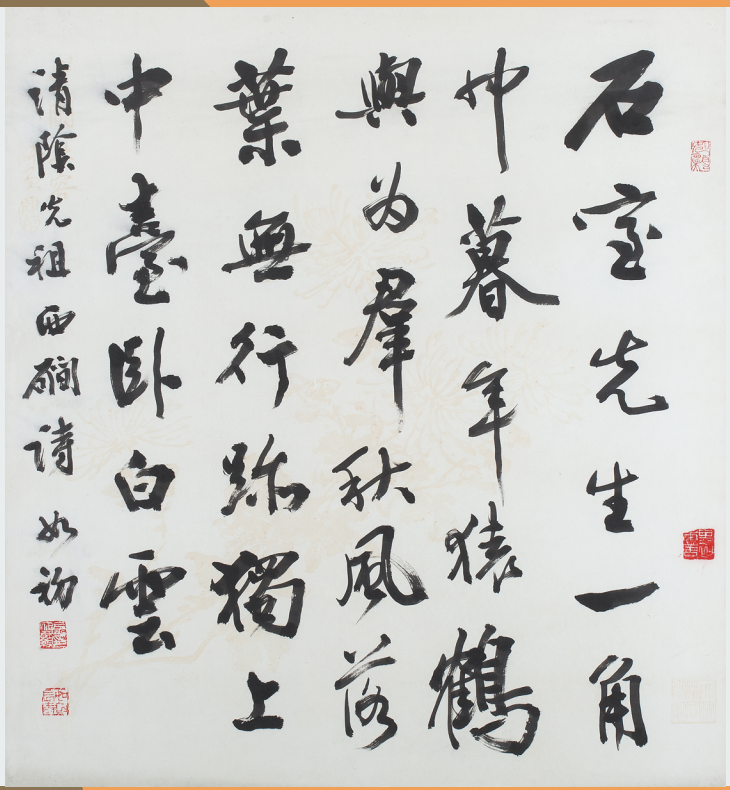


컨설팅 모습



네트워킹 간담회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書如初畵梅亭)’



근현대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필 여초 김응현 선생과 동시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 원로 산수화의 대가 매정 민경찬 화백의 서화예술교류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글씨와 그림은 그 근원이 같다(書畵同原)'는 점에서 한국의 서(書)를 대표한 인물과 중국의 화(畵)를 대표한 인물의 만남은 그 예술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강원도 인제는 여초 선생이 만년을 보낸 곳으로, 10년여의 세월을 지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운 장소이다. 한편 매정 선생은 소나무를 소재로 독창적 화법을 발전시킨 한국화의 대가로 평가되는데, 매정 산수화의 배경이 되는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등은 모두 인제를 대표하는 명승지이다. 명실상부 최고의 대가인 이들이 지내며 예술을 펼친 인제는 제일가는 자연과 예술혼이 살아 있는 고장으로 널리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다. 강원 인제의 여초서예관과 중국 항주의 민경찬예술관은 2022년 뜻깊은 행사를 위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예술가의 위대한 작품세계를 보다 널리 알리고, 양국의 청년 학자들을 통해 학술적으로도 재조명하고자 한다.



'매정화실' 현판
(매정 선생의 작업실에 걸려 있던 여초 선생의 글씨로, 이번 교류사업을 통해 여초서예관에 기증되었다.)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2013년 6월 개관한 여초서예관(공립 1종 전문박물관)은 한국서예사 최고의 대가로 평가받는 여초 김응현(如初 金膺顯, 1927-2007) 선생의 문화재급 서예작품과 유품, 그리고 국내외 서법 관련 자료, 서적 등 총 8천여 점의 소장품이 보존·전시되고 있는 서예전문박물관이다. 서예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연중 다양한 전시, 교육, 학술,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교류지역

| 중국 절강성 항주시

금번 교류행사의 상대 기관은 '민경찬예술관'으로 중국 항주에 위치한다. 항주는 절강성의 대표 도시이다. 매정 민경찬(1935~) 화백은 사실 인천에서 출생한 한국인이다. 1945년 10세의 나이로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 군함에 호기심으로 탑승하였고, 이후 제2의 고향이 된 절강성 항주에 기착하게 되었다. 송나라의 수도였던 항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으며, 또한 중국의 10대 명승지로 꼽히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호(西湖)'가 있다. 북송 최고의 시인인 소동파가 항주에 머물며 서호를 배경으로 많은 시를 쓴 것도 유명하다.

주요 교류기관

| 동방연서회

1956년 창립된 단체로서 한국 최초의 서예 전문 아카데미이자, 우리나라 서예 교육의 요람이었다. 여초 선생은 일제에 의해 단절되고 왜곡된 우리의 전통 서법을 다시 잇고자 노력하였고, 동방연서회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여초 김응현 선생이 회장직을 맡았다.

사업기획 발전 성과

행사명이 다소 어려움, 홍보성과 연계하여 고민	→	전시명 변경 또는 부제 첨부를 검토 중
두 인물을 엮어서 스토리 개발	→	구술조사 등을 통한 에피소드 발굴 및 연구
학술연구 시 두 인물의 현대적 의미를 이끌 필요가 있음	→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휴먼다큐 영상물 제작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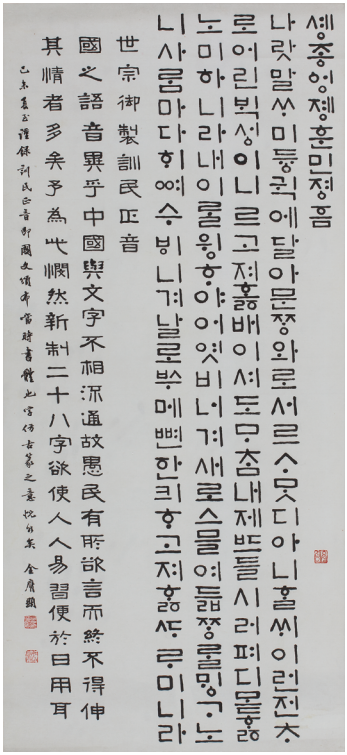
기획 회의	교류행사 준비를 위해 관계자 회의(대면, 전화, 화상 등)를 다수 개최하였다. 여초서예관 학예사를 비롯하여 인제군문화재단 공간운영팀장이 중심이 되고, 김형년 선생(여초 선생 장자)과 이일구 선생(매정 선생 제자)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홍보물 기획 제작 (영상, 포스터)	2022년 예정된 교류행사의 예고편 형식으로 홍보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향후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고자 기획 중이며, 예고영상을 통해 교류행사의 기대감을 높이고자 한다.

2022 추진 계획

사업명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書如初畵梅亭)'
분야	전시(서예, 산수화, 학술발표)
참여 지자체	강원 인제
사업수행단체	여초서예관(인제군문화재단)
교류지역	중국 절강성 항주시
주요 교류기관	민경찬예술관
사업 개요	• 교류 내용 인제(여초)-항주(매정) 간 서화작품을 기반으로 한 전시·학술 교류 행사 • 프로그램 1) 양 도시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 관계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가제)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 : 서여초, 화매정' 전시 (작품교류전, 온라인 병행) 3) 두 인물에 대한 양 국가 관련학자들의 상호 교차 연구 발표 4) 두 인물에 대한 휴먼다큐 영상물 제작 배포 5) 양 국가 간 타 도시 작품순회전 개최



관계자 기획 회의(2021.10.26. 동방연서회 사무국)



여초 김응현, 세종어제훈민정음(1979년작 136*62.5cm)

참여자 인터뷰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참여자 인터뷰

20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대면/비대면 구분의 한계를 넘어 문화교류를 수행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석자
박정현 |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팀
한유진 | 시화풍정 담소
안신혜 | 화성시문화재단 축제2팀
고명진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유승호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장재덕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공간팀
김은주 |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진흥팀
김남용 |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정의진 |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Q. 20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추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에서 담당하신 역할을 포함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장재덕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공간팀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공간팀장 장재덕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라는 재단 명칭처럼, 아리랑 콘텐츠를 가지고 이번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K-퍼포먼스'에 관심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를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승호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안녕하세요,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을 기획하고 운영한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유승호라고 합니다. 히가시카와정은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영월보다 작은 마을입니다. 1985년부터 '사진의 마을'이라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국제 사진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도시예요. 영월은 이 도시와 2010년부터 교류 관계가 있었고 영월에서도 국제사진제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양 도시 간 사진 교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진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입니다. 이번 국제교류사진전을 총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주 |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진흥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저는 우리놀이진흥팀의 팀장입니다. 이번에 몽골, 스페인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사한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한지나 한식, 공예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접근했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놀이라는 범주로 전통문화 국제교류의 폭을 확장한 것 같아서 기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의진 |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는 정의진입니다.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사업에서 운영과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남용 |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 수석큐레이터 김남용입니다. '한-중 수교 29주년 국제교류전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이라는 타이틀로 중국 광저우 대용당-칠호창예술관과 교류했습니다.

박정현 |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팀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팀장 박정현입니다. 작년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글렌데일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매도시 간 공통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각자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의논해보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유진 | 시화풍정 담소

해남의 예술단체 '담소'에서 사업관리와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해남도 김포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2년 연속 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신혜 | 화성시문화재단 축제2팀

화성시문화재단 축제팀 안신혜입니다. 화성시에는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인 융건릉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처음부터 이곳에 묻힌 건 아니었어요. 서울 동대문 쪽 영우원에 안장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기에 좋지 않게 꾸며져 있었겠죠. 이후 아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좋은 날 좋은 장소로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기 위해 애쓰다가, 천장(遷葬)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것을 '영우원 천장'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정조 효 문화제' 때 능행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효 문화제 자체가 축소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국제교류 아이템을 함께 발굴해보고자 영우원 천장 퍼포먼스를 위해 음악감독을 섭외해 음악을 새롭게 창작하고 연출가와 창작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창작된 공통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영우원 천장을 묘사 및 재현하고, 프랑스에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용을 창작했습니다.

Q. 김포와 해남에서는 2020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사업의 연속성이나 확장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박정현 우선 저희가 참여했던 공모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년째 사업을 추진하며 고민했던 사항은 형식의 문제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조금 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새롭게 생산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말할 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고민했던 것은 어떤 기관이나 사업비가 선행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는 지역 작가들이 해외의 현지 작가나 큐레이터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면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해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했다면 더 많은 내용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속상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작가들, 큐레이터들 간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 구상을 어떻게 지원하고 실현할지 계속 문제의식을 가져가려 합니다.

한유진 저희도 당연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를 맞이하며 평화나 치유 같은 큰 의미의 주제를 설정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친교, 교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고자 했어요. 교류를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코로나19 속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 주제에 담아서, 어떻게 하면 팬데믹 와중에도 우리가 교류한다는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벗, 친구 등의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확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무래도 예술가 단체이다 보니 예술가로서 풀어낼 수 있는 예술적인 부분들을 고민했어요. 단순히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도 악기와 합주했다면 좋았을 텐데',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했으면 더 원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화상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 끌어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느냐에 따라, 예술가들끼리 국제적으로 교류하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Q. 전주에서는 올해 유일하게 청소년 중심의 교류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국내외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김은주 저희는 놀이로 접근했잖아요. 사람들이 놀이는 그냥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학생들의 마인드가 열려 있더라고요. 한국 학교의 경우 프로젝트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한 학생들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고, 몇 주에 걸쳐서 각국의 놀이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며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한 정도의 지원만 해주시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전통놀이로는 아직까지 국제교류의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나 온라인 발표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발표해보는 경험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도출한 아이디어가 단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레고 사의 리드 아티스트에게 디자인 자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과정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매우 열정적이셔서 아이들에게 온전히 놀이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코로나19로 국제교류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보다 올해는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을 타진하고자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팬데믹 속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정현 저희는 작년에 다소 무겁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입니다. VR 가상전시관 같은 공간과 형태를 만들며 다소 무거운 형태를 띠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나 품도 많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편집 가능한 형식이 어떤 것일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류사업 웹사이트(ggiep.net)를 제작하여 평면적이지만 아카이빙이 가능하고, 양 도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야 가볍게, 자유롭게,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매년 이 공간을 채워가다 보면 또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Q. 많은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시각예술 분야에서 VR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담양에서도 VR 전시관을 구축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점이나 차별점이 있을까요?

김남용 향후에도 VR 전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축했습니다. 공간 해석에 따른 작품 깊이가 관람자에게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분적 해석보다는 전체 구성이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Q. 영월과 정선에서는 최대한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는데, 상황상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영월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출국하려고 계획하셨고, 정선에서는 실제로 소규모의 인원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예정이신데요.

유승호 아무래도 공간을 직접 봐야 전시기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명이라도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도쿄올림픽과 함께 코로나가 확산되며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이후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자문회의 때 나온 이야기까지 고려해서 전시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처음 주제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양 도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작도 모집했고요. 양 도시의 주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서로의 사진을 보면서 공감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할지 고민하다가, 기록과 라이브가 가능한 영상이라는 매체를 많이 생각했어요. 회의를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일본인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와 사는 영월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영상편지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작품을 양 도시에 전시하는 것 외에도 히가시카와의 정장님과 영월의 군수님, 일반 참가자들의 축하 영상, 홍보 영상, 양 도시를 촬영한 사진작품과 영상 등을 양쪽에서 함께 상영해서 온라인에도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교류를 작게라도 계속 이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재덕 저희는 복합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교류를 진행하는데요, 주된 교류 콘텐츠인 양국 간의 합동 공연은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대면으로 진행하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공연실황 영상화 등의 작업을 진행했어요. 비대면으로 사업이 전환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악기로 연주음을 만든다거나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좀 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현지인들에게 저희의 취지와 아리랑 콘텐츠를 직접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출국을 결정했고, 공연과 영화 상영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대여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던 아쉬움과 내년에는 같이 만나서 공연도 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공연 주제곡을 준비했는데요, 12월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만의 매력이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은주 저희가 전통놀이 사업을 시작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스페인 유럽전통놀이스포츠협회와 연계해 포럼을 진행했던 경험이 이렇게 국제교류까지 이어졌어요. 스페인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 전문가의 교류와 학생 간의 교류가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에게는 놀이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교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류할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유진 저희는 예술가들의 단체고 거의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른 국가에 가서 공연하는 형태의 교류는 진행해왔지만, 콘텐츠에

집중이 된 국제교류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공감대와 호응을 끌어낼 것인가,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한 차원 더 높은 국제교류를 이끌어낼 것인가 등, 예술가들만의 고민을 통해서 2년간 국제교류 사업을 했던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예술가로서 굉장한 자극제가 되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한유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인데, '국제교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지역문화'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과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지역에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이나 항공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까지 예산이 확대된 것도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국제교류'를 할 때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기관이나 재단에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을 좀 더 확대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예술단체나 협회들이 직접 지역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행정 주체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남에서도 민간 예술인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술단체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다시 한번 지원하는 형식은 어떨까 합니다. 예술단체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재단에서 협력하여 다시 제안하는 등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호 대다수의 국제교류 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예술의 특정 분야를 기준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 예술적 특수성과 같은 콘텐츠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교류가 있던 나라나 콘텐츠가 접목되는 나라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과 다양성,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인들도 그 콘텐츠로 교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김남용 상호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나 수행기관별로 참여 횟수를 제한하기보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면 어떨까요?

Q.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는 어떠신가요?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장재덕 지자체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은 범위가 매우 넓기에, 기존에 교류하던 도시가 아니더라도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협력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진 영월군과의 관계는 행운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영월군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제가 역사박물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활동을 주민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교류를 진행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이후에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 교류가 단순히 일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원데이 샷'이라고 해서, 영월과 히가시카와의 생활 모습을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담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문화도시 선정이 성사된다면 더 큰 힘을 갖고 주민주도형 문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유진 해남에서는 올해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함께 참여하고 지원해주셨지만,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포의 박정현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예산이나 운영 등이 담당자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느슨한 형태의 유기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요. 진흥원-지자체-사업 참여단체, 세 주체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홍보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산업계에서도 일종의 트라이앵글 조직체계가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확장성을 크게 갖지 않을까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참여해 국제문화교류를 펼치게 될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은주 진흥원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문예술 분야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희도 공모 신청을 할 때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선정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국제문화교류의 영역을 하나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폭넓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양한 콘텐츠의 결과물들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향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승호 지역의 관이든 예술단체든, 상대 참여단체의 적극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고명진 관장님께서 코로나 이전에 히가시카와를 다녀오시기도 했고, 기존에 교류가 있었거든요. 사업에 지원할 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백 퍼센트 확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는 지역과 교류해야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에,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여 좋은 파트너들과 사업을 추진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한 단체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조금 더 자주 모여서 아이디어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용 국가 간의 실질적 교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분야의 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 비전을 위한 장기 사업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덕 내년에는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이 대면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했던 여러 단체의 자료나 노하우가 다음의 예술단체나 지자체, 재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면/비대면을 넘어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이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이 과정들이 더 큰 문화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참여자 인터뷰

2021년에는 기획지원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2022년 성공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유교’와 ‘서예’라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지 두 담당자의 고민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참석자 이정서 | 영주문화관광재단
조준형 |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Q. 20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기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준형 |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인제군문화재단에서 여초서예관을 담당하고 있는 조준형 학예사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로 작품교류전이 중심이 되는데요, 교류전의 전시 기획과 전반적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정서 | 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이정서 매니저입니다. 베트남과 '선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역량강화교육과 자문을 거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해외 교류지역과 사전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본격 사업추진 전에 이런 네트워킹 기간을 짧게나마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여 추진하고 계신가요?

조준형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전시 작품교류전이기 때문에 현지 전시장 대관과 전시 작품 섭외가 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잘 협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작품 섭외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현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기가 꽤 큰 작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계획이라 작품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을 구하는 과정이나 대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서 저희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네트워킹 기간도 짧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베트남 현지 관계자와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서 최대한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하자는 것을 어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연과 워크숍을 해야

하기에, 현지 참여자와 공연 장소를 빨리 섭외하려 하고요. 참여할 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줌(Zoom) 프로그램으로 회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셨나요? 이번 사업의 콘텐츠 선정 기준이나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준형 저희 기관은 주제가 명확한 박물관이기도 한데, 사실 이 사업은 지역을 앞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도 알려야 하고, 상대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교류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제군을 문화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인물이라면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시인 박인환, 여초 김응현 서예가가 있습니다. 여초 선생은 근현대 한국 서예를 대표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미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초 선생을 콘텐츠로 내세우는 부분은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 상대의 경우, 아무래도 서예문화의 종주국은 중국이라 할 수 있고 이번에 교류하게 되는 매정 민경찬 선생은 중국에서 그림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생전에 여초와 매정 두 예술가 사이에 깊은 교유관계도 있으셨고요. 특히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선정할 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Q. 기존에는 매정 민경찬 선생을 다루는 교류가 없었던 건가요?

조준형 여초서예관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여초 선생이 살아계실 때 교류했던 이력은 있는데,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림에 들어가는 글씨인 '화제'를 여초 선생이 썼다든지 하는 공동작업 개념의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숨겨진 작품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교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업은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Q. 영주에서는 어떤 지점을 고민하며 콘텐츠를 선정하셨나요?

이정서 문화의 유사성과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고려했습니다. 영주시

장수면에는 베트남 리왕조,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이용상과 관련된 유적지인 이당고택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문화, 관광 교류 쪽으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교류 국가로 베트남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교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교라는 공통주제를 각 나라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비교해보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를 생각했습니다.

Q. 영주에서는 자문을 통해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해 보인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민들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이정서 시민들과 청년들이 최대한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선비의 교육 및 통과의례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청년 기획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각국의 전통의례를 시연하고, 워크숍에서는 각국 대학생들이 공동 창작물을 만들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Q. 유교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진취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정서 그렇지 않아도 유교의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한국과 베트남의 대학생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창작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해석에 대해 당장 제한을 두기보다는, 양국 대학생들이 통과의례 공연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활용해 유교를 재해석하고 공동 창작물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여초서예관에서는 상설전시를 포함해 서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기획하신 사업이 여초서예관에서 했던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준형 여초서예관은 기본적으로 여초 선생의 작품 외에도 서예 또는 문자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교육강좌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 중심 혹은 국내 대상 사업이에요. 이번 사업은 2015년 한, 중, 일, 대만, 싱가폴 작가들이 참여한 국제전 이후로 6년 만에 진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서예가와 중국 본토 서예가를 대조·대비하는 전시가 아니라, 글씨와 그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작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화동원'의 의미를 높이는 점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제군과 중국 절강성 항주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 합니다. 여초서예관과 민경찬예술관의 MOU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인제군이 아직 문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중국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꼽히는 항주시와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상호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 함께 하는 전시라는 점, 그리고 국제교류라는 점 자체가 저희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Q. 여초, 매정과 관련된 후대의 인물들과 네트워킹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조준형 우리나라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원로 서예가들 다수가 여초 선생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제자의 제자로 이어지며 계속되고 있어요. 매정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항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계시던 십수 년 동안에도 많은 수의 제자를 길러내셨어요. 마지막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전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항주, 매정 선생과의 네트워크를 한국에 있는 매정 선생의 제자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초 선생의 제자, 한국에 있는 매정 선생의 제자, 중국에 있는 매정 선생의 제자, 이러한 관계망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제자들 간의 지속적 교류전 같은 여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작품전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워크숍 등 향후 서로 오고 가며 진행할 수 있는 문화적 행사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던 넓은 제자 네트워크를 잘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속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정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서 많이 걱정입니다. 대면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의 특산품 및 관광품 키트를 제작하여 베트남 현지에 전달한다거나, 영주에 살고 있는 베트남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양국의 문화를 섞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해본다거나 하는 방안을 비대면 사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준형 기본적으로 전시에서는 실물을 보는 게 중요하므로, 양국 전시관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는 게 첫째입니다. 올해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시스템을 활용한 상설 온라인 전시 서비스나 비대면 야외 전시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Q.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유익했던 점이 있을까요?

이정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국내외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모인 이들이 함께 간담회도 하고 네트워크를 쌓으며, 영주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작은 하나의 생각들이 확장되고 살이 붙어 큰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진행했어요. 참여하신 분들 모두 적극적이셨고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영주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유익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조준형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여초서예관 입장에서도 전시기획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요. 인제군은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없는 실정인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 차원에서도 하나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적 발전 역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다들 반가워하는 상황입니다.

Q.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정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라기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획지원이나 추진지원에 참여했던 지자체나 문화예술단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민이라든지 고려해야 할 점, 팁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준형 지자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실상 국외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이런 것조차 잘 모르는데, 국외의 사정은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해외의 사례나 소스 같은 자료를 많이 소개해주실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가비교를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분석하고, 우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역량강화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정서 앞서 조준형 학예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지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다 보니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의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베트남이랑 교류한다고 하면, 현재 베트남 상황은 어떻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고, 현지 사람들은 어떤 걸 지양하고 지향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조준형 코로나19를 대비해서 행사를 기획할 때, 운영방식을 전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을 다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비대면, 온라인, 메타버스 등 다양하고 새로운 운영방식들을 다루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Q. 기획지원 참가자로서, 앞으로 참여하게 될 지자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이정서 이 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소도시도 각 도시의 특별한 색과 문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국외적으로도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조준형 이 사업은 우리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가진 지역이나 단체에도 좋고, 해외의 콘텐츠와 유사점이나 동질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보유한 지역이나 단체에도 좋은 교류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월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국의 문화자산을 상호 나누고 결합하면서, 서로 문화가 잘 섞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운영되는 기획이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특별기고

지역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 | 이선철
로컬문화 브랜딩 및 마케팅: 더 작은 도시로, 더 좁은 골목으로 | 홍유정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교류사업의 방향 | 주재연
미술관의 새로운 도전, 예술생태계의 확장과 공공성 | 김재환
문화기획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박정인

지역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

이선철 |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1. 지역문화의 이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모든 지역과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정체성과 독자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법령이나 지원체계 등도 갖추어가고 있다. 지역의 문화기관과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도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활동과 교류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 지역에서 오래 내려오는 전통문화, 그리고 장르로 대별되는 전문성을 가진 예술문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식주와 연계된 생활문화이다.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그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전승, 개발 또는 보급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지역문화는 영역별로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대체로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전통문화는 역사, 유산, 민속, 풍습 등 다시 다양한 층위의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전통을 낡고 오래된 것으로 여기고, 그 계승과 보전을 위해 수동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투자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문화의 잠재적 가치는 물론 미디어, 관광 등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술문화는 그 특성상 매우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창작과 유통, 향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술의 효능이 많은 사람들의 일과 삶에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나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술가의 창작이 고도화되고 있다. 현대에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와도 결합하는 등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의식주와 관련된 음식, 패션, 건축, 디자인 등의 영역으로 대별될 수 있는 생활문화 역시 이제 그 기능적 편익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문화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음식이나 건축 등은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방문객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흡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미 예술인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처럼 다양한 편익과 효능을 제공하는 문화는 개인의 정서는 물론 주민의 자부심과 공동체의 결속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대외적으로 지역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들이 생활문화에 대한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방안과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수행할 예술가와 기획자 등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2. 교류의 유형과 전략

이러한 취지와 맥락에서 지역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 역동적인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진흥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화도시, 관광도시 등 여러 이름의 라벨링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의 영역을 이 사업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다. 그 전략과 실천방안을 다시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창작교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상호방문이나 레지던시 또는 아트마켓 등을

통해 실체적인 교류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동과 체류가 쉽지 않아,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직접 방문 등은 현재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언젠가 극복하거나 대안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유형의 상호방문이나 교류가 재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비대면 교류나 온라인 방문 등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2.2 로컬축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의 문화성 강화와 해외 콘텐츠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제교류의 수행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자연스레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녹여낼 수 있다. 이는 해당 축제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각국의 예술 또는 예술가와 함께 공동의 축제를 개발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등 장르의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축제를 개발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과 관객들의 폭넓은 향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차 방문이나 공동 투어 등의 형식을 띨 수도 있다.

2.3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발 맞추어 예술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교육이나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권할 만하다.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 체험이나 학습 등은 이미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교육 소재가 예술이나 생활문화에까지 확장되면 더욱 풍부한 교류의 자원이 확보될 수 있다. 단순 관광을 넘어 다양한 지역문화에 대한 방문객들의 체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에도 부합하는 형식이다.

2.4 공간 기반

지역에 조성된 문화공간 인프라는 예술교류와 창작 작업의 실질적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향유 중심의 공간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이 그 출발점이 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대안공간과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국제 레지던시 등을 통한 작가 간 교류는 탁월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공적으로 수행된 〈첩첩산중〉 등이 그 좋은 예이다.

2.5 아트마켓

전문 예술단체나 예술가라면 가장 본질적인 교류의 핵심은 공동 시장 개척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 작품의 판매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 활동 영역도 넓힐 수 있다. 실제로 어떤 결과물들은 본래 지역보다 타 지역에서의 호응과 소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고 시장이 이에 반응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이나 국가 위상의 상승으로 매우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3. 결언

그동안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역 간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취지도 다양해지고 수행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제교류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지방은 이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방식의 국제교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특정 대상에의 편중과 쏠림, 성과 관리의 부재 등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여건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지역 기반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중앙단위와는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성과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시장과 정책 양면에서의 전략과 실천방안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 영역도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region)은 이제 중앙에서 벗어난 지방(local)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구(district)의 개념을 넘어, 향토를 아우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선 철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영국 런던대학교(City) 예술정책 &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김덕수패 사물놀이 사무국장과 벤처기업 폴리미디어 대표이사 및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02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주하며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감자꽃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연세대, 국민대, 경희사이버대 및 북동연방대(러시아)등에서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로컬문화 브랜딩 및 마케팅:
더 작은 도시로, 더 좁은 골목으로

홍유정 | 로컬문화 마케팅 기획사 하스카, 〈기획자의 집〉 대표

'지역'과 '로컬'은 사전적 의미가 같은 단어이다. 그런데 실제로 두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와 '로컬문화'라고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곳만의 멋과 맛을 살린, 현재성을 동반한 매력적인 콘텐츠는 '지역'보다는 '로컬'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더욱 생생하다. 그래서 대중은 '로컬'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더 가깝게 선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단어 '로컬'이 지역의 창조적 뉴웨이브를 표현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 10년 치 변화가 일어났다고도 한다. 뉴웨이브는 연쇄적이고도 빠르게 나타나는 중이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관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줄줄이 '임대' 안내문이 붙은 번화가 빈 상점을 볼 때나 기업들의 오프라인 사업장의 연이은 폐쇄 소식을 들을 때는 또 어떤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시대적 시선이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전복의 흐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컬'이다. 로컬의 무엇이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로컬'이 달라진 공간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사람들은 일상의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공간의 특별한 경험을 즐기고 원한다. 이를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로컬은 그러한 특별한 세계관을 제공한다. 지역의 곳곳에 오롯이 남은 근대 건축물이나 오랜 역사적 생활상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커다란 매력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경험을 "시간여행을 다녀왔다"라고도 표현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험한 답답한 삶의 경계에 해소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숲, 강, 들, 바다와 같은 자연이 가까운 로컬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경계 없음과 확장감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의 매력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개성과 여유를 가진 속박되지 않은 멋진 친구들—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다. 어느 외국 도시에서나 봤을 법한 멋진 크루(서퍼, 노마드족, 젊은 장인, ESG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멋진 상인 등)들이 요즘 지역마다 문화 리드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인물들에 대한 로망은 최근 드라마《갯마을 차차차》로 한 번 더 인증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예술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기존에는 한계로 보았던 지역성을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중은 그 지역성을 보기 위해 네댓 시간 차편을 이용해 그곳을 찾아가고, 숱한 유튜브 영상들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낸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섭의 지혜로 연결하고 융합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지역의 문화재나 관광유산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적 교류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브랜딩이나 홍보 및 세일즈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흔히 마케팅 분야에서 말하는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들'에 해당한다.

-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우리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명확하게,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나)
- 우리 기획 혹은 전략에 맥락이 끊어진 것은 없는가(흩어진 요소들이 잘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누수 없이 귀결되고 있나)
- 모든 참여자에게 상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는가(무난한 여러 개보다 강렬한 하나의 웰메이드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가)
- 그들에게 제공할 경험의 여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였는가(다양한 참여자들의 만남-교류-기약의 경험 루트들이 의도한 대로 설계되었나)

내년이면 '위드 코로나' 가 안착될 것이라고들 한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느껴지는 빠른 일상 회복의 숫자들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오고 있다'는 긴장감 섞인 농담이 회자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회복의 숫자들이 안착하는 곳이 바로 로컬이라는 것이다.

로컬은 일상이 멈추었던 지난 시간 동안, 중앙 도시와 글로벌까지 리듬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한 번 새로운 정책들로 숙명적인 변화를 안아야 하기에, 기존의 질서에 많은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런 거친 변화들을 한 번 걸러서 안을 수 있는 곳, 지친 도시인들에게 안식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컬이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K-문화의 글로벌 손님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들은 더 한국적인 공간과 문화를 찾아 더 작은 도시로, 더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곳에서 우리는 지역 문화예술의 깊은 향기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런 기획들이 지금 우리의 계획서에서 그려지고 있어야 한다.



홍 유 정

뉴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20년째 활동해온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서울과 제주에 거점을 두고 로컬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디렉팅 중이다. 전국형 기획자 육성에 관심이 많으며, 지역의 변화를 리포트 하는 로컬연구그룹 〈클럽.모더놀로지〉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제교류 사업의 방향

주재연 | 난장인터랙티브 대표

필자는 지난 3년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진행한 지자체 국제교류 사업인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켜보았다.

우리나라의 국제교류 사업은 이제껏 중앙정부 부처의 주도로 외교·통상·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지만, 지자체들은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중심의 공연, 전시 등 지자체 홍보 행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제교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업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이 부족하며, 국제교류 사업의 특성상 비용과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자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로컬브랜드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타 국가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워크숍과 공동창작의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교류도시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전략

지난 3년간 지자체들이 지원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시각예술단체의 전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이지,

교류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교류(交流)란 말 그대로 섞이고[交] 흘러야[流] 한다.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함께 의제(어젠다)와 교류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 양 도시의 주민과 예술가,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문화콘텐츠에서 중장기적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해나갈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핵심요소

1) 지역민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자

예술가 중심의 국제교류 사업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참여 예술가들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지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없다면 교류사업은 지속되기가 힘들다. 문화예술 분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의 장소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고 접할 수 있다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2)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로컬브랜드를 구축하자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전통문화유산은 문화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른 문화권의 전통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교류사업의 시작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선행된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로컬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도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3) 다양한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자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공연, 시각예술(사진, 회화, 영상), 공예에 편중되기 쉽다. 특정한 예술 장르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공연/전시/지역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의 교류/문화 체험/예술가 중심의

워크숍/레지던시 프로그램/강의/상설 온라인 교류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교류 상대 도시의 역할

해외의 교류도시에서 일정 기간 수행되는 단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교류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의 역할과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행사장소를 제공하고 홍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교류도시의 행정조직과 교육기관, 예술단체 등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도 해외 교류도시의 문화와 프로그램을 같은 비중으로 소개하고, 축제나 공연 프로그램에 활용해야 한다.

3. 때가 왔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접근하지 못했던 지자체들의 해외 도시 간 교류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심의 저변에는 사업을 뒷받침할 만한 지역의 문화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화 공공기관들이 자체 역량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 한국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글로벌 성과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음식/한글(한국어)/한복/전통 무형문화/상품 등 기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 재 연

사물놀이, 판소리, 아리랑 등 전통유산을 해외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서울아리랑페스티벌, 궁중문화축전의 총감독으로 전통문화 콘텐츠를 축제화하였고 주요 국가 수교행사 등 해외에서도 한국문화축제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사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위원,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미술관의 새로운 도전, 예술생태계의 확장과 공공성

김재환 |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생태계’라는 말은 주로 건강성, 다원성, 역동성과 어울리지만, 주변에서 목격되는 ‘예술생태계’라는 말은 대개 ‘자립성’과 맞물려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의 예술생태계는 일반적인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자생력’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술과 관련하여 ‘생태계’라는 말은 다양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그 세계의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것과 밀접해야 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적합하다. 그런데 다양성의 맥락에서 지속성이란 엄밀히 말해 다양한 활동과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에 속한 사람이나 단체의 지속성이 아니라, 생태계 활동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예술생태계에 속한 예술인 및 단체의 지속성과 자생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기에 예술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하며, 건강하다는 것은 새로움과 역동성이 꿈틀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예술생태계가 새로움과 역동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험과 융합, 확장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확장성이 가능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형식과 내용에서 새로움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의 발굴은 물론 콘텐츠의 새로움,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경제적 자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전국의 문화재단에서 다원예술이나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도립미술관은 이런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몇 년 사이 조금 새로운 전시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다. 2019년에 개최된 《도큐멘타 경남 I -기록을 기억하다》도 그중 하나이다. 이 전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마산 문화예술계의 사건을 발굴하여 대표적 이슈를 중심으로 아카이빙한 전시인데, '다방'과 '영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1950년대 마산 문화예술계를 조사하던 중 상남영화제작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미국 공보원(USIS)에서 운영하는 영화제작부서로 당시 '아시아의 할리우드'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던 종합영화제작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창원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과 함께 1950년대 상남영화제작소에서 근무했던 김기영 감독의《죽엄의 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실된 음원을 재구성하여 전시에 참여하게 했으며, 이를 토대로 창원의 연극인, 악사, 변사와 협업하여 야외무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창원(마산)의 주요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일종의 융합예술 형태의 전시와 공연으로 선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1950년대 유행했던 다방(당시 다방은 지금의 복합문화공간이었다)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재현해, 지역 카페와 예술인들이 이 다방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미술관이 미술 작가와 큐레이터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일반 시민이 직접 전시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술생태계를 확장한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도큐멘타 경남 I - 기록을 기억하다》 수림다방 운영 모습

이러한 사례는 2020년《살어리 살어리랏다》전시의 한 섹션으로 진행한《별유천지(別有天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시는 경남 전역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이자 시민단체를 소개하는 아카이브형 전시로, 공유를위한창조(거제), 비컴프렌즈(양산), 돌창고프로젝트(남해), 팜프라(남해)가 참여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쟁점, 다양한 갈등들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그들의 삶은 물론이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결과물을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예술적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사실이다. 미술관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어쩌면 보다 확장된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별유천지》를 매우 공공적 관점에서 실행된 전시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전시를 향유하는 관람객의 확장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다. 발화의 권력, 즉 목소리를 가진 자가 타자를 향해 말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짜 어려운 것은 발화, 즉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이다. 이 확장성이야말로 예술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길이다. 미술관의 공공성은 바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미술관으로 수렴해 다시 발화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줄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미술관은 이런 방식으로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나름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별유천지》
'공유를 위한 창조' 활동 모습



《별유천지》 팜프라 전시 전경



김 재 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큐레이터협회 소장품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며 현대미술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비판적 예술이론의 역사』(공저)가 있으며, 〈리뷰하다〉, 〈한국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대만현대미술전〉, 〈폐허프로젝트〉, 〈도큐멘타 경남 I - 기록을 기억하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등 현대미술과 관련한 전시를 기획하였고, 제5회 이동석 전시기획상(2012)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미술관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화기획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박정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지금 우리는 '문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창조능력과 표현행위의 세련됨을 거듭 찬양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 생산은 인간 없는 문화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문화기획자는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 어떤 것이 더 위력을 발휘할지 결정해야 하는 미학 혁명(Aesthetic Revolution) 앞에 서 있다.

문화기획자의 본래 역할은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기 위한 문화의 선택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문화가 소통되는 방법이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문화기획자들도 국내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문화기획자가 기획, 제작, 유통하는 콘텐츠가 외국의 콘텐츠이거나 여러 국가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한 콘텐츠인 경우도 많으며, 문화콘텐츠법 분야는 다양한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국제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중재 합의도 없었다면 결국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분쟁을 처리해줄 국제적 차원의 법원이나 분쟁해결기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여 어떤 절차 내지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 일단 어떤 법을 적용할지 준거법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국제재판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송달과 증거조사 등의

구체적인 소송절차(국제민사사법 공조 등), 그리고 외국법원에 동일 사건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모순과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국제적 소송경합과 저촉)의 문제, 외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어떠한 조건 아래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인가(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문화기획자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만도 없다. 그렇다면 문화기획자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법 소양을 가지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실제로 법률자문위원으로서 국내 문화기획자의 국제계약서를 검토해보면, 대부분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약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상대 국가가 작성해서 주었다는 계약서 또한 상당히 엉성하거나, 분쟁 발생 시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약될지 모르는 중대한 합의도 부족한 적이 많았다. 그러므로 자문을 받기 전에, 준거법을 정하기 전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법률정보를 최신 업데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스스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으로 무장한 문화기획자라 하더라도 문화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공연, 영화, TV 쇼 또는 전시회 등 예술 및 미디어 분야의 라이선스 및 관객 제한 등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으므로 IMDA의 입장을 자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IMDA의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류 코드(Arts Entertainment Classification Code)'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홍보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인종차별, 종교탄압,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창작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IMDA는 2015년 싱가포르 예술축제(Singapore international festival of arts) 행사 이벤트의 라이선스 허가를 위해 개최 2개월 전에 각 이벤트의 최종 스크립트와 콘텐츠 체크 리스트를 사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공공질서, 국가 안보 및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족 여성 군인들을 다룬 초상화 작품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있기에, 우리나라 공연법상 외국인공연추천제도 수준으로 검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프로젝트를 끝까지 성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밖에 문화기획자가 영어를 잘하는 경우라 해도, 계약서의 문구는 법률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하게 의무를 지웠다고 생각하며 적은 영어 문구가 해당 국가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위기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약어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서로 다른 약어로 이해하여 가운데서 별도로 이를 이해시키는 이메일을 쓴 것으로 입증한 사례도 있는 등 어려움이 크다. 언제나 상대방 국가의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드라마 등에서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로 많은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기획자가 가져야 하는 역량 중 네트워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전문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문화 제작과정에 몰두한 나머지 계약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에이전시의 권한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상 의미가 있는 처분문서에서 당사자 확인과 권리의무, 분쟁 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외울 만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와 같은 확인에 소홀하여, 자신이 양도받은 콘텐츠를 악용하여 로펌을 활용한 분쟁만 일으킬 뿐 소명은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법인세 혜택이 있는 국가를 활용한 페이퍼 컴퍼니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삼게 되는 경우 아무리 저작권자를 잘 알고 있어도 해당 페이퍼 컴퍼니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결국 제대로 문화는 유통되지 않고 분쟁으로 고통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해당 국가도 저작권법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을 보호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권리구제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최소 상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 등을 통해 법률 구현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우리나라에는 저작권이 침해당하게 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제휴 권한을 구매하지 않은 자가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 저작물 삭제(take-down)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영리적 활용 외에 조금이라도 양도를 전제한다면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거나 아예 소송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 또는 저작물이 생성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행정조정제도)가 안착되어 소가가 작은 사건이든 아니든 법원에 가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일이 많지만, 미국은 법원만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다 2020년 12월 27일, 미 의회는 소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법원(CCB; Copyright Claims Board)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 내에 설립하는 법안인 CASE(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를 통과시켰다. 이 전담법원은 일반 법원에 비해 훨씬 빠르게 저작권 침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모든 절차를 줌(Zo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총 손해액(실제손해액 또는 법정손해액)이 30,000달러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는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어, 높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기획자는 국내법, 해외법뿐만 아니라 국지적 플랫폼 정책과 해당 국가 권리자 단체들의 사용료 항목 등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정책 변경의 인지는 회사의 수익분배와 직결된다. 끝으로 저작물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읽어내는 눈도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의 공모전이나 경쟁 오디션을 통해 발굴해온 콘텐츠나 실연자는 표절 문제 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되었으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등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체 응모작 525건의 28.9%인 152건이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했으며,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은 공모전도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로 조사됐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공모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확보와 검증 등 제대로 된 콘텐츠 발굴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문화기획자는 인간과 인간을 소통하여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인으로서, 스스로 확보한 콘텐츠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률 상식에도 비례하는데, 모든 분야가 그렇듯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존경받는 한류 문화기획자가 되는 데 지름길은 없다.



박 정 인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법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인예술법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검수위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법률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엔터테인먼트이사, 셀수스협동조합 조합원 등 지식재산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록: 역대 참여 사업

2018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융복합	전시, 공연	영월 동방채묵 아트페스타	우수사업 선정 및 '19년 연속지원
경기 이천	이천도자기 명장회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제작 시연	2018 세계문화유산 장인박람회 이천도자기명장 도자 제작 시연	
강원 원주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탄자니아 잔지바르	전통음악, 미디어	워크숍, 페스티벌	사운드와 영상을 매개로 한 원주-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	
경기 안산	안산문화재단	중국 옌타이	미디어, 융복합 무용극	전시, 공연	단원 길 떠나다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이탈리아 피렌체, 만토바, 노비리구레, 로마, 베네치아	마당창극	공연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피어난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충북 괴산	문화공간 그루	프랑스 몽톨리외	한지, 사물놀이, 활자, 종이 제작	전시, 공연, 워크숍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충북 청주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호주 시드니	식문화, 공예	전시, 워크숍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2019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독일 라이프치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행사	우수사업 선정 및 '20년 연속지원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NOMAD, 예술로 만나다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전시, 레지던시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경기 이천	이천나드리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워크숍, 제작 시연	도자기 제작 시연 2탄 파리 루브르 이천도자기명장 세계를 빚다	'18년 우수사업
경남 창원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각예술, 국악	전시, 공연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잇다	
경북 고령	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크레마	마당놀이, 가야금	공연, 전시, 세미나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해외공연	
전남 순천	두루미 과학예술센터	프랑스 낭트	공예, 융복합 무용극, 식문화	전시, 공연, 워크숍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기념, 순천만 생태 기반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확산 및 도시재생 기반 문화 도시 네트워크 협력·교류	
충남 공주	웅진문화회	베트남 후에	백제기악	공연	세계문화유산 우호협력도시 전통문화 교류 공연	
충북 옥천	옥천문화원	일본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시문학	포럼, 작문대회	제9회 일본지용제	
충북 충주	택견보존회	폴란드 그단스크	택견, 사물놀이	공연, 워크숍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 & 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2020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현대미술	전시, 워크숍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 展	우수사업 선정 및 '21년 연속지원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샨티니케톤	해남굿, 시문학	공연, 워크숍, 시 낭송	평화의 시마을 해남 (Shanti Poemtopia Haenam)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이탈리아 로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위크	'19년 우수사업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서천, 몽골 문화예술창작교류 시즌2 "NOMAD, 예술로 만나다"	
경기 군포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러시아 우수리스크	연극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 창작연극 합동 영상공연	
경남 고성	고성농요보존회	러시아 모스크바	고성농요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모스크바 초청 고성농요 "차이콥스키 음악원" 영상공연	
경남 밀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중국 한단	독립운동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 떠나는 아리랑 여행	
전남 목포	목포문화재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도민요	공연, 세미나	한·러 문화 실크로드 (Silkroad)	

2020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스페인 타레가	거리 퍼레이드	공연, 워크숍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충북 제천	제천문화재단	중국 장수	한방	전시, 워크숍, 영상 공유회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	우수사업 선정
경기 수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독일 프라이부르크	판소리	공연, 워크숍	수원의 〈정조가〉, 900년 역사의 음악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울려퍼지다	
경기 파주	파주시 시립예술단	미국 글렌데일	합창 음악극	공연	LA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0주년 기념 문화축제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일본 마이즈루	전통무용	공연, 워크숍	포항시·마이즈루시 문화교류 사업	

지역, 잇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1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인	정길화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소	0392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3호
연락처	02-3153-1784
홈페이지	kofice.or.kr
기획	교류기반팀 이예구, 조선미, 김누리
디자인	PaTI 멋짓공작소(박하얀, 김수연)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본 도서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비매품/무료 (PDF)
ISBN 979-11-91872-06-4 (15600)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